



강명순
부스리기사랑나눔회 대표

가족해체와 더불어 심화되는 한국아동문제

국가경제대란 이후 결식아동, 빈곤아동, 위기 아동 등이 급증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아동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성장하고 폭력이나 각종 범죄는 나날이 심각화 되고 있다.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이혼이 급증하고 모성포기와 부성포기와 같은 윤리부재적 가족해체 현상이 일반 아동에게 발생하는 시점임에도, 아동문제 해결이나 아동 권리보장에 대해 '뾰족한 해법'이 고안되지 못한 상황이다.

부스리기사랑나눔회 빈곤아동 대상 조사결과 1998년 7월 결식아동이 급증할 당시 결손 및 해체가정의 비율은 32.3%이었는데, 2000년에는 47.1%로 급증하였다가, 2004년에 45.5%로 나타났다. 즉, 빈곤가족의 출현과 가족해체 현상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빈곤가족은 일반가족보다 해체된 가정이 많다. 2005년

지역아동정보센터 조사결과 빈곤가족 중 해체가구의 비율은 42.9%이었다.

굳이 빈곤한 가정의 아동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더라도, 가정이 해체되었을 때 부모의 보호와 사랑으로 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아동에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여러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빈곤가족이 호소하고 있는 큰 어려움은 경제문제 19.6%, 심리정서적인 불안 18.6%, 자녀교육의 어려움 16.4%의 순이었다. 2006년 조사결과 경제문제보다는 심리정서적인 불안문제가 20.4%, 자녀교육 문제 16.4%, 경제문제 13.3%로 정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빈곤아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성격도 바뀌어 2003년에는 심리정서적인 불안을 호소한 아동이 15.3%에 불과하였는데, 2006년에는 30.3%까지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정보센터에 의하면 빈곤아동이 갖

고 있는 문제의 분포가 정서불안/우울증/내성적 26.9%, 공격성(다른 아이를 때림) 26.5%, 자신감 없고 부정적/의존심 생김은 10.4% 순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공격성, 불안, 우울 같은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의 비율이 이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빈곤아동과 빈곤가족이 모두 동일하게 정서불안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빈곤이 가족해체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배가된다는데 있다. 빈곤아동 중 한어머니가정이 14.2%, 한아버지가정이 17.0%, 조손가정이 7.4%, 기타 해체가정이 1.6%로 40.2%의 빈곤아동이 가족해체 문제를 안고 있다. 가족해체와 빈곤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정서

불안과 우울증, 공격성이나 자신감 결여로 인한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 부적응 문제 등이 발생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성폭력의 피해자나 표적이 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보건복지포럼에서는 위기에 선 한국아동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집호를 구성하였다. 위기아동 실태, 아동권리의 방안과 지원체계, 결식, 학대, 방임의 실태와 과제, 아동의 정신건강의 현황과 정책과제, OECD 국가의 아동복지수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아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되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정**